

“내 그림 보고 부모님 생각 난데요”

10월 17일까지 해남 '농부화가' 김순복 광주 초대전

3년전 딸이 선물한 스케치북·색연필로 그림 시작
시골 장날·농촌 풍경 등 사람 이야기 고스란히
‘김넷과’서 88점 전시...“동화 삽화 그리는 게 꿈”

해남군 현산면 김순복(60)씨는 새벽 5시면 눈을 뜬다. 여는 농부처럼 눈과 발이 살터다. 호박과 양파 농사, 봄동과 대파 수확까지 일년 열두달 한가할 틈이 없다. 그녀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농부화가’. 밤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린다. 해남 풍경, 동네 사람들이 주 소재다. 해남 행촌미술관에서 지난 6월 열린 첫 전시회에는 그림 속 주인공이 모두 모여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오메 신기하네. 나 어딴가” 시골벽적 한바탕 즐거운 동네 잔치가 벌어졌다.



‘농부화가’ 김순복씨

29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복합문화공간 김넷과에서 만난 그녀의 그림들은 따뜻하고 유쾌하다.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지만, 왠지 찡한 마음도 든다. 그녀는 얼마전 서울시청 시민명예 갤러리에서 ‘순 진짜 참기름처럼 고소한 그림’ 전시회를 열었다. 대부분 타향에 몸을 위탁하고 있는 서울 관객들은 “엄마가 생각난다”며 울컥했다. 그림을 본 유명 작가는 “진짜 민중화가가 나타났다. 붓을 내려놔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김 씨는 “서울 전시에 멋모르고 갔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주기분이 좋았다”고 했다. “그림이라고 내세울 것도 없어 부끄러운데,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친근감을 느끼고 부모님 생각한다고 해 행복하다”고도 했다.

지금까지 그린 그림은 120여장. 이번 광주전에는 모두 88점을 걸었다. 작품은 그림만 있는 것도 있고, 실제 오고 간 이야기를 짧게 적어 놓기도 했다. “허리 아픈데 앉아서 뽕지 그랴요? 앉아서 일하면 뽕지가 더 아픈게요 잉~” 해남 밭에서 대파를 뽑는 아낙들의 대화가 함께 적힌 그림에는 허리를 구부려 일하는 이, 쪼그려앉은 이가 보인다. 모내기를 하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앉은 아낙들의 대화다. “쌀값이 좋아야 장날 돈이 팍팍 돌겠인다~” 시골 장날 풍경의 모습이 담긴 그림은 훈훈하다.

“오늘 날씨 참 좋겠네요 잉” “밭주인이 맘씨가 고운게 날을 잘 골라 주셨네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을 지는 하늘과 푸른 밭, 호미질을 하는 모습에 세 아낙의 대화가 진짜 들리는 듯하다.

그림을 그린 건 3년 전부터다. “언젠가 꼭 그림을 그리고 싶다”던 엄마의 말을 흘려 듣지 않은 딸에게서 72색 파버카스텔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선물받고 나서였다. 일을 마치고 밤이면 그림을 그렸다.

오빠와 동생을 가르치기 위해 공장에 취직한 그녀는 언제나 그림이 그리고 싶었지만 언급생심이였다. 청주 출신인 그녀는 34년 전 남편을 따라 해남으로 내려와 다섯 아이를 키웠다. 12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울컥해지고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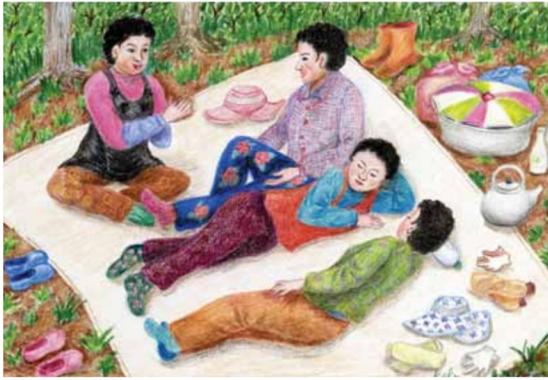
“항상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는 상도 많이 받았어요. 10여년전에 미술학원을 찾았던 적도 있었죠. 딸에게 선물받은 색연필 색깔이 너무 고와서 그림 그리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 정확한 자세를 그리는 부분은 아직 어렵구요. 눈에 보이는 풍경을 그대로 그리기도 하지만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이미지화하기도 합니다.”

그림에는 그녀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동네와 사람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손에 잡히듯 생생하다. 새참 먹고 잠시 누워 휴식을 취하는 그림을 보면 막걸리 통을 빼개 삼아 배고 누운, 뽕글뽕글 파마머리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들리는 것만 같다.

‘한살림’에 소속돼 유기농 호박을 재배하는 김씨는 초창기부터 한살림 소식지에 그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그녀의 그림으로 한살림 달력이 제작되며 입소문이 났고 이 달력을 보고 행촌미술관 이승미 관장이 전시를 기획했다. 이 관장에게서 소식을 들은 파버카스텔 한국 지사장이 서울 전시회장을 방



‘추억의 뽕이요 뽕’



‘새참먹고 낮잠’

문하고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선물로 주기도 했다.

김 씨는 이제 색연필이 아닌,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고 했다. 동화책 삽화를 그려보는 것도 꿈이다.

전시는 10월 17일까지 계속되며 오는 9월1일 오후 5시 김순복씨가 참여한 가운데 오픈행사를 갖는다. 전시가 열리는 ‘김넷과’는 지하에 위치한 갤러리를 비롯해 카페, 도서관, 호텔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전시는 2층에서 열리며 휴일 없이 오전10시부터 밤 9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229-33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달항아리와 함께 떠나는 자연의 세계

조문현 ‘달항아리가-’

9월1일부터 금봉미술관

단아한 순백의 달항아리에는 맑은 기운이 흐른다. 백자 달항아리와 함께 화폭에 등장하는 산과 강, 폭포, 달, 꽃, 새 등의 모습에서는 무위자연 속 파안의 세계를 동경하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하다.



‘달항아리가 있는 풍경’

금봉미술관(관장 한상운)은 9월 기획전으로 조문현 작가를 초청, 9월 1일부터 24일까지 ‘달항아리가 있는 풍경’ 전을 연다.

푸른색 바탕 위의 새하얀 달항아리 옆에는 다양한 풍경들이 자리하고 있다. 휘영청 노란 보름달이 뜨고, 나뭇배에 몸을 의탁한 사공과 나그네는 함께 강을 건넌다.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어머니의 머리 위 광주리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기묘묘한 봉우리와 어우러진 다

양한 모습의 나무들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겼다. 항아리에 올라 앉은 작은 새는 양중맷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문화예술학 석사 과정을 마친 조씨는 광주시 문화예술상 허백련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전통과 형상회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월요일 휴관. 문의 062-269-988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크릴·광목·모래와 수목의 새로운 만남

광주문예회관, ‘수목의 재발견’전

‘새로운 수목화를 만나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이 대극장 안 갤러리에서 ‘수목의 재발견’을 주제로 오는 9월 17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김명석, 김진, 나지수, 백미리 내, 장예슬씨 등 5명의 작가가 수목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한 2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명석은 안호와 같은 문자를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먹과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더한 작품을 선보이며 김진은 삼베, 광목 등에 먹을 이용하여 인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나지수의 ‘인간군상’ 시리즈는 인간 형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표현하고 있으며 백미리네는 붓이라는 도구 대신 먹물을 묻힌 모래를 사용, 굵고 거친 느낌과 가늘며 부드러운 느낌을 통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자연의 순환을 나타낸다.



김명석 작 '땅과 땅 위의 것'

관람시간은 공연 있는 날은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 공연 없는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공연 일정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jgart.gwang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문의 062-613-83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서양미술사 산책 강좌 수강생 모집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적은도서관에서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서양미술사의 주옥같은 명화들과 유명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을 감상해 보는 ‘서양미술사 산책’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9월 8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1시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 된다. 강사는 문희영 전신세계갤러리 큐레이터.

각각의 강좌 주제는 ▲ ‘원시시대, 미술의 시작’, ▲ ‘가장 대중적인 미술, 인상주의’, ▲ ‘인상주의 예술가들’이다.

수강 신청은 미술사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0명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일부터 7일까지 방문 접수 또는 전화접수하면 된다. 수강료 무료. 문의 062-670-7968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Shin Yang Park Hotel

신양파크호텔 여름 패키지

스탠다드룸 1박 + 조식 2인 + 사우나, 수영장 2인

₩110,000원 (세금포함) 객실예약 228-8000
광주일보 제휴 패키지로 예약주시는 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신양파크호텔과 함께하실 임대업장 사업주를 모십니다!

▶ 임대업장 : B1 노래방 / F2 한식당
▶ 상담 및 문의 : 062) 221-4172 총무과
*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